

응답자 71.6% “현재 캠퍼스 명칭 본·분교 인식에 영향”

하나의 경희 #4 - 캠퍼스 이원화 설문

김예준 기자 00179jun@khu.ac.kr

#. 캠퍼스 통합 5년차를 목전에 두고, 우리 신문은 양 캠퍼스의 통합 관련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디지털 기획 - ‘하나의 경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는 설문을 통해 캠퍼스 이원화에 대한 구성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우리 신문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학내 구성원 588명을 대상으로 캠퍼스 이원화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캠퍼스 35.71%(210명) 국제캠퍼스 64.29%(378명)가 응답했고, 참여한 구성원 비율은 교수 15.82%(93명) 학생 68.03%(400명) 교직원 16.16%(95명)이었다.

캠퍼스 통합 5년차 인식개선 공감대 형성돼

‘캠퍼스 간 유사학과 통·폐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81.46%(479명)가 찬성을, 18.54%(109명)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서울캠퍼스는 총 210명의 문항 응답자 중 65%(136명)가 찬성한 반면 국제캠퍼스의 경우 총 378명의 응답자 중 90%(343명)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양 캠퍼스 학과분류가 ‘순수학문-응용학문’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29.25%(172명)가 동의를, 63.78%(375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이원화 캠퍼스 명칭(서울캠퍼스/국제캠퍼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38.95%(229명)가 적합하다, 61.22%(360명)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두 항목 모두 양 캠퍼스에서 부정응답보다 긍정응답이 두 배 이상 높아 눈길을 끌었다. 우리학교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캠퍼스 이원화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였다.

또한 ‘현재의 캠퍼스 명칭이 본·분교 인식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71.6%(421명), 관련 없다는 응답이 28.57%(168명)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법적 분교였던 타 학교들이 서울 소재지 명칭은 그대로 둔 채, 잇따라 지방 소재지 캠퍼스 명칭을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등으로 변경해 오며 따라 생긴 ‘분교 이미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축적돼 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구성원이 말하는 ‘현 이원화의 핵심 문

제’ 항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영어학과·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등 과 같은 유사·중복학과의 방치, ‘순수학문-응용학문’이란 명확하지 못한 기준의 학과 분류가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서울과 수원이라는 지리적 입지가 가져오는 선입견을 극복하게 해주는 ‘특성화작’ 캠퍼스 명칭의 부재 또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도 이미 여러차례 제기됐던 문제로, 05년부터 2년에 걸쳐 ‘학문적 명칭’으로의 개편에 양 캠퍼스 동시 변경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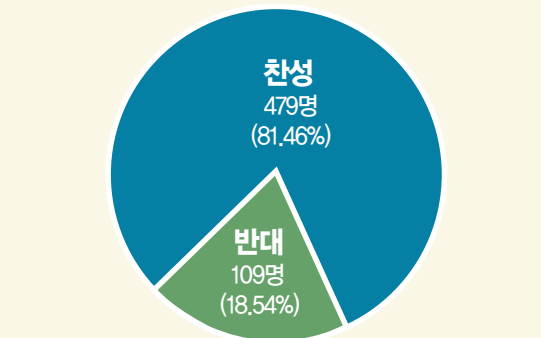
현재 우리학교는 행정적인 통합이 이뤄졌음에도 입시정보 분리표기, 부서 운영, 제도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부 차이들은 국제캠퍼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주된 원인으로 회자되고 있어 이원화의 제대로 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문에 응답한 한 구성원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공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캠퍼스에 있다고 설명할 때면 대내외적으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순수·응용 학문 학과 분류 ‘동의하지 않는다’ 과반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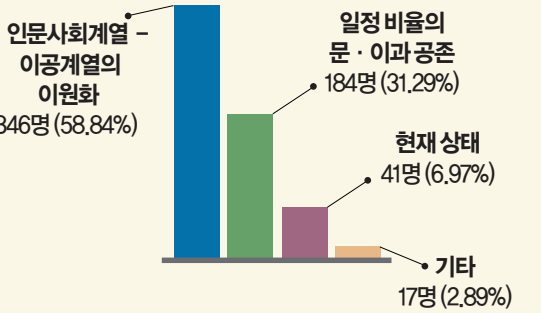
한편 본·분교 이미지 개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문·이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학사 구조와 캠퍼스 이원화에 대한 사회적 홍보 부족, 그리고 학내 인식문제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구성원이 생각하는 ‘올바른 캠퍼스 이원화의 방향’으로는 4개 항목중 현 상태 유지 항목이 6.97%(41명)로 최저치를 기록해 현재의 이원화 정책이 학생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가장 대표적인 이원화 모델로 손꼽히는 인문·사회계열-이공계열의 이원화는 58.84%(346명)로 가장 많은 구성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어서 학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적정 비율의 문·이과 공존 31.29%(18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분류한 학과와 캠퍼스 내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원화는 우리 학교 내 분교 논쟁과 사회적 인식의 저하라는 아쉬운 결과를 내고 말았다. 이제는 학교와 학생이 서로 소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 수정하고 명확한 기준의 제시,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캠퍼스 이원화 구성원 설문조사〉

Q1 캠퍼스 간 유사학과 통·폐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Q3 올바른 캠퍼스 이원화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5 현재의 캠퍼스명칭이 본·분교 인식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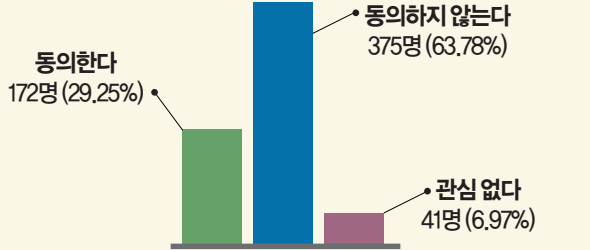
421명 (71.6%)

관련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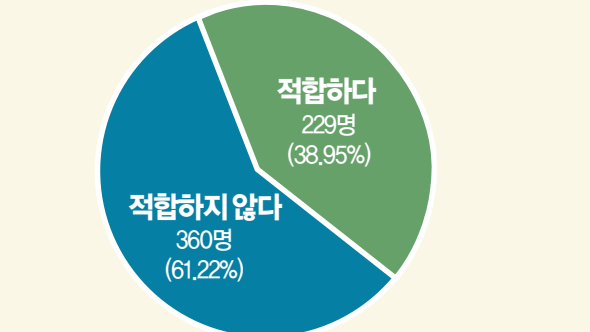
168명 (28.57%)

※ 설문방법 : 이메일 대량 설문조사
설문 기간 : 2015.11.09. ~ 2015.11.13.
총 응답자 588명 : 교수 93명(15.82%), 학생 400명(68.03%), 직원 95명(16.16%)

Q2 현재의 양 캠퍼스 학과분류가 ‘순수학문-응용학문’이라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Q4 현재의 이원화 캠퍼스 명칭 (서울캠퍼스/국제캠퍼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월 첫째 주(11.30~12.4)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미래는 준비된 자의 세계”

●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제목	일시	장소
삼성화재 채용설명회	11.30(월)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포시즌호텔서울 채용설명회	12.1(화)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현대자동차 채용전제형 인턴(국내영업) 채용면담	12.4(금) 14:00~16:00	청운관 1층 상담실
현대자동차 채용전제형 인턴(국내영업) 채용설명회	12.4(금) 16:30~17:30	청운관 B117호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사전 5분전까지 참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참석협조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 취업특강

특강 제목	일시	장소
상식2 (한국사 및 역사에세이)	12.3(목) 15:00~17:00	네오관 103호

● 취업진로지도 및총 컨설팅 (취업상담)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질문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상담 내용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시	장소	신청방법
취업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금 11:30(월) 16:00~18:00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법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상직/상담」 메뉴에서 신청 (컨설턴트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 취업준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접단상담: 15명 내외)

특강제목	일시	장소	신청방법
취업준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신종 교수님)	11.30(월) 16:00~18:00	취업진로지원처 회의실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상직/상담」 메뉴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국제)

●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5.11.02(월)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시간표' 공지 참조
학점교류생	추천기간: 2015.11.30(월) 17:00 까지 학번부여: 2015.12.01(월)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5.12.14(월) 10:30 ~ 12:15(화)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5.12.15(화) 12:00 (1차), 2015.12.21(월) 09:00 (2차)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5.12.16(수) ~ 12.18(금)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신청기간(폐강과목수강생)	2015.12.16(수) ~ 12.17(목) 17:00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5.12.22(화) ~ 2016.01.14(목)	
성적평가(예정일)	2016.01.18(월) ~ 01.19(화)	

● 수업안내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캠퍼스	1학점(2기)	1교시	10:00~11:50	국제캠퍼스	1학점/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1교시	10:00~11:50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2교시		13:00~15:45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 수강신청

가. 수강가능 학점 최대 6학점
나. 수강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다.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 및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동일)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 →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강취소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5.12.21(월) 17:00	전액 환불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작성 (별첨명의 통장 사본 등함) ※ 폐강과목수강자 포함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5.12.22(화) ~ 12.29(화) 17:00	수강료의 2/3환불	
수업개시일 1/3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5.12.30(수) ~ 2016.01.04(월) 17:00	수강료 1/2환불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취소 불가함)		

● 환불금액 반환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비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개설기간: 전교 10명 이상, 교양(기초/핵심/자유이수) 20명 이상 / 나. 전공강좌 개설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2015학년도 2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불가 / 라. 60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학기 재수강신청 불가(2014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해당됨)
마.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수강소만 가능) / 바. 폐강과목 수강자는 환불/수강장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사. 계절학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아. 계절학기 수업은 졸업 전 통상 1회, 1학점은 통상 1회로 하며, 한임상은 그 절반으로 함
자.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 9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수강 가능 (한임상은 휴학 중 1회) 2) 졸업유예자는 휴학 중 수강을 불가함

● 문의처

가.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2961-9311, 9339 나.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31201-3401~4

후마니타스칼리지